자주총여 새내기 새로 배움터 기획안

수신 : 총여학생회 중앙위
발신 : 14대 자주적 총여학생회

◉전체시간

1) 총여학생회 셀프 카메라
여학생회는 이런 곳입니다.라는 내용으로 꾸며지는 셀프카메라 입니다. 여학생회와 관련된 간단한 꽁트와 과여학생회, 단대여학생회, 총여학생회실 탐방으로 꾸려집니다.

2)문예판 - 총여학생회 새터 기치를 풀어냅니다.
①구한말, 반지뽑기 부인회
나라의 위기를 여성의 힘으로 극복해 보고자 국채보상운동의 한 부분으로 여성들이 일으킨 반지뽑기 운동.. 여성들이 시대의 모순을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극복해 갈때에만이 새로 일구어질 세상은 여성이 원하는 세상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반지 뽑기 부인회의 취지문을 통해서 봄
②현대, 목욕탕에서 여성들의 대화
여대생, 직장여성, 중년의 여인이 등장, 이 시대의 여성들의 현실과 그 대안을 이야기 함
·여대생 - 대학의 성문화, 성폭력에 대하여..
·직장여성 - 직장내 성폭력과 부당해고등..
·중년여성 - 전업 주부로서의 삶과 황혼이혼
위의 등장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여성 공통의 문제로 이해하고 그것을 여성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여성의 관점으로 풀어가는 과정을 그림. 중심 내용은 그 모든 문제의 해석과 해결에 있어 여성은 객체이길 강요 받아 왔다는 것이며 새 시대로의 도약에 있어 구 시대의 문제들을 여성이 주체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③구한말 여인들과 현대 여성이 함께 꾸미는 결의의 장
구한말의 여성들과 현대의 여학생, 여성 노동자, 여성 농민, 주부들이 함께 모여 새 시대를 열어갈 희망과 결의를 다짐.. 구한말의 반지 뽑기 부인회 취지문을 과거와 현대 여성이 함께 공유하면서 새 천년을 앞둔 우리에게 있어 반지뽑기 부인회의 취지문이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생각해 본다.

3)회장님의 내용 풀이
앞의 영상물과 문예판이 뜻하는 바를 아주 쉽고 편안하게 풀어가는 자리.
4)희망찬 정리 몸짓

◉상설마당

♀대학의 성문화
- 진행자 : 각 단대(1기 인문대,2기 농대) 여학생회장님
- 내용 : 진행자로부터 대학내의 성폭력과 그 대응방안, 그리고 올바른 성가치관 정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실제 성폭력 규제학칙 가안을 보며 「00과 성폭력 규제회칙」을 최대한 재밌게 만들어 본다.
- 선전거리 : 성폭력이 빈번한 곳을 표시한 복현골 지도와 성폭력 실태 도표 그림

♀연애학 개론
- 진행자 : 총여학생회 부회장님

- 내용 : 고교시절 가질 수 있었던 연애에 대한 환상과 편견을 깨고 대학인답게 평등하고 민주적인 인간관계로서의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자로부터 듣고 실천활동을 벌인다. 실천활동은 기숙사 네거리에 설치된 교단에서 자신의 연애경험과 앞으로 이런 연애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가슴을 열어라」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평등연애구호를 정한다.
- 선전거리 : 우리가 연애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잘못된 생각 몇가지

주한미군 범죄, 그 끝은 어디인가?
- 진행자 : 총여학생회 회장님
- 내용 :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고 그 느낀점을 노가바로 표현한다.
- 선전거리 : 주한미군 범죄 사진전

끝나지 않은 역사, 위안부
- 진행자 :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대구시민모임에서 추천하는 한 분
- 내용 : 영상물을 보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는 시간을 가지고 궁금증을 진행자와 함께 풀어가는 시간. 그리고 얼마전 일본정부의 공식사과를 받지 못한채 돌아가신 강덕경 할머니를 지문그림으로 형상화한다.
- 선전거리 : 2000년 국제여성전범 모의재판

- 99년 여학일꾼 교양학교를 준비하며

받는이 : 총여학생회 중앙위
보내는이 : 14대 자주적 총여학생회
언제 : 1999년 2월 19일

1. 들어가며

-긴 시간 겨울잠을 자버린 총여학생회의 변명

지킬 것을 지켜가는 변화, 총여학생회가 99년을 예감하면서 가장 중심에 두고 살고자 했던 것은 바로 총여학생회의 뿌리를 튼튼히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여학생회, 과 여연소모임, 탁아소모임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여학일꾼들의 건강한 고민에서부터 총여학생회를 9천여학우의 대중조직으로 세워가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먹은 마음과는 달리 선거가 끝난후 오랜 기간동안 총여학생회가 여학일꾼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총여학생회의 모습에 여학일꾼들의 실망의 목소리가 높아만지지는 않았나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한 번 잘못했다고 계속 잘못만 하겠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학일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고민을 들어보고 서로에게 따뜻한 격려를 할 수 있는 자리를 고민하였습니다. 바로 전단위 여학일꾼들의 한판 힘다지기인 여학일꾼 교양학교에서 시작하도록 합시다.

2. 여학일꾼 교양학교는 왜 하는가?

여학일꾼 교양학교를 하는 이유는 간단명료합니다. 과 소모임에서든 과여학생회, 단대여학생회에서든 자신이 속한 곳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수 있을까를 밤낮으로 고민하는 일꾼들의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내가 속한 곳의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섭니다. 우리 일꾼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내 주위에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좋을텐데라는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주위에 사람은 보이지 않고 나 혼자만으론 빠르게 변화하는 여성정세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으며 결국에는 이러다가 한해가 가겠지, 예전에 했던거라도 다시 하면 되겠지라는 체념아닌 체념에 빠지게 되었을 겁니다. 진부한 속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습니다. 나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고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를 모을 수 있는 자리, 가슴이 떨려오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성학'이라는 학문을 맛만 본 사람도 알고 있듯이 여성문제, 여대생 문제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이고 사안적인 것이 아니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어 나만 어떻게 한다고 나만 바르게 생각한다고 뿌리에서부터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학생회라는 여학우 조직이 건설된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간에서 여성문제를 해결해가기 위해서는 단대 여학생회, 혹은 총여학생회가 한해동안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멀게만 느껴지는 총여학생회가 아니라 나의 고민속에서 풍부해지는 내가 만들어가는 총여학생회라는 마음을 만들어가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시간이 지나는데로 바람에 몸을 맞기듯 1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나의 1년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입니다. 하얀 종이위에 여학우들과 함께 살아갈 나의 모습을 그려넣는 것, 마냥 즐겁지 않을까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여학일꾼 교양학교를 하는 것입니다.

3. 우리 모두는 무엇을 얻어갈 것인가?

참여하는 일꾼들의 능동적인 노력만 있다면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얻어갈 수 있습니다. 우선은 나와 같은 일을 하면서 간혹 힘들어하지만 성실한 마음을 잃지않은 동지들이 있다는 사실에 내 일에 대한 뿌듯함과 소속감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는 나의 1년을 조망하고 설계할 수 있는 자신감과 쏟아져 나오는 여성정세를 나의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행동할 수 있는 머리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과 사업이나 소모임 운영을 한 눈에 알 수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까짓 것이야 내가 할 수 있지 라는 배짱이 생긴다고 할 수 있지요. 셋째는 멀게만 느껴지고 도대체가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베일에 쌓인 듯한 총여학생회를 구석구석 들여다보면서 총여학생회에 대한 이해와 따듯한 애정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총여학생회가 여학우들의 올바른 삶을 위해 1년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 그곳에 무엇을 두고 있는지 알게 됨으로써 내가 속한 공간에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폭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정도면 무슨 일이 있어도 여학일꾼 교양학교에 꼭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무슨일이 있어도 잘 해야 되겠다라는 굳은 각오를 하고 있는 총여학생회와 이것이 나의 1년 아니 향후 몇 년의 삶을 결정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넘치는 일꾼들이 있기에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 총여학생회에서 의의와 목표, 전체 기획을 임시로 내어왔습니다.
- 단대와 과 여학생회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풍부히하며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중간에 버티고 있는 사정상 아주 아주 열심히 해야합니다)
- 단위 여학생회, 소모임 등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실지로 필요한 부분을 맡아줄 것을 제안할 것입니다.
- 그리고 이 기회에 우리 일꾼들을 모조리 파악할 것입니다. 연락이 오기를 기대하십시오.
- 그외에 것은 총여학생회에서 준비하겠습니다.

5. 어떻게 진행되는가?

1시 함께하고자 하는 여학일꾼들이 모여야겠죠.
10-20분 일찍 와서 서로 얼굴도 익히고 행사 준비도 같이 도와 주면 고맙지요
사회자(?)가 짤막하게 이 행사의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함성과 함께 즐거운 한판을! 뭔가 배울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은 어떨까요?

1시 30분 분위기를 추스린 후 첫 번째 강연(20분 정도)
<99년 자주적 총여학생회의 모습이 보인다!> 강사:?
실천활동-

2시 30분 화려한 두 번째 강연(1시간 정도)

<대학의 성문화> 강사 : 대구여성회 조윤숙 선생님
실천활동-

4시 '어, 너도 이런 고민을..'
한 마디로 부서별 시간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 탁아 일꾼
- 여연 일꾼
- 과 여학생회장님
- 중앙운위

*단대 간부와 여학생위원회가 고민이 됩니다.
부서별로 주제를 하나 잡아 (그 부서에서 가장 고민되는 것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한 후 그것을 형상물로! 서로의 고민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5시 30분 여학일꾼들이 함께 했던 오늘을 잘 정리합시다.
평가 작업(설문지)
이후 즐거운 뒷풀이